

한국 교회를 타락시킨 돈

어떤 여인이 남편 둘과 시어머니를 독살하고 또 다른 시어머니와 심지어 자신의 친딸조차 독살하려다 잡혔다. 보형금을 타기 위해서였다. 동생이 엽총으로 형의 가족을 총살했다. 역시 돈 때문이었다. 청해진 해운은 승객 476명을 세월호에 태우고 항해하다 사고를 내어 300여 명의 생명을 희생시켰다. 돈을 좀 더 버느라 안전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만약 돈이 없었다면 오늘날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범죄와 사고는 상당부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딤후 5:10)란 성경의 가르침은 매우 확실하게 실증되고 있다.

철학자 로크(John Locke)에 의하면 오늘날 모든 사회의 가장 큰 문젯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빈부격차도 돈 때문에 생겨났다고 했다. 돈이 없었더라면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이 꼭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고 소유했을 것이다. 더 많이 가져봐야 다른 것과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이란 매개체가 생겨났기 때문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해서 돈으로 바꾸고 그것으로 미래의 수요에 대비하고 다른 것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한다. 음식과 의복 등은 썩지만 돈은 썩지 않으므로 한없이 축적할 수 있게 되었고, 돈이 생산 수단이 되자 돈이 돈을 버는 상황이 벌어져서 빈부의 격차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설득력 있는 설명이다.

과거에도 돈이 인간 욕망의 가장 큰 대상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큰 유혹 거리가 되었다. 거의 모든 가치가 돈으로 환산될 수 있게 되어서 돈만 주


면 거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분, 지식, 명성, 사랑, 우정같이 과거에는 돈으로 살 수 없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상품이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재물, 명성, 권력, 쾌락 등 이 세상에 인간을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에 대한 욕망이 이제는 돈에 대한 욕망으로 집중되고 있다. 돈만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 하나하나를 따로 추구하기보다는 돈을 추구하는 것이다. 심지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단 돈을 모으려 한다. 후에 그런 것이 확실해질 때 바로 돈을 투입하면 쉽게 얻고 달성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돈이 만능의 열쇠로 승급되자 이제는 돈 버는 것 그 자체가 삶의 목적으로 둔갑하게 되었고 돈을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선망과 심지어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만능의 열쇠가 된 돈은 사람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능력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범죄한 인간은 가인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된다. 그 때문에 인간은 생존과 의미 있는 삶을 위협받고 존재론적 두려움에 떨게 된다. 바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대용품을 설정한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다. 철저히 세속화된 오늘날에는 근본주의, 모슬렘 등 소수를 제외하고는 돈이 가장 매력적인 우상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특히 전 세계에서 한국인만큼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다. 2008

년 4월 8일 일본청소년연구소가 한국, 일본, 미국, 중국 의 고교생 1,000~1,500명씩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한 결과 한국학생의 50.4%는 “부자가 되는 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응답했는데 일본학생은 33%, 중국 27%, 미국 22.1%가 그렇게 대답했다 한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선 어떤 수단을 써도 괜찮다”는 것에도 한국학생은 23.3%가 동의해서 미국 21.2%, 일본 13.4%, 중국 5.6%보다 높았다 한다. “돈으로 권력을 살 수 있다”는 것에도 한국 학생은 54.3%나 동의했는데, 미국, 일본, 중국은 30% 정도가 동의했다 한다. 돈은 영합적(zero-sum)으로 분배되는 최하위 가치로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기 때문에 한국인 대부분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린다. 여러 분야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매우 불행한 이유도 바로 돈 우상숭배가 가져오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 기독교인 상당수가 돈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우상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면서 정당화한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마 6:24)을 지적하심으로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셨다. 사실 성경의 모든 경고 가운데 재물에 대한 탐심만큼 많은 것도 없다. 그런데도 성경을 강조하는 한국 교회가 성경의 가장 심각한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든지 아닌지는 간단하게 식별할 수 있다. 돈을 벌기 위하여 성경이 금하는 거짓말이나 불공정한 행위를 감행하는지를 보면 안다. 총회장이거나 단체장이 되기 위하여 뇌물을 쓰는 것, 회계 부정이 있기 때문에 교회 재정상황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면 반드시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다. 그것은 모든 시대의 교회에 적용된다. 지금 한국 교회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타락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돈을 무시하기 전에는 결코 개혁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타락은 사회에도 해를 끼친다. 오늘의 세속 사회가 자본주의를 포기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기독교만은 돈 우상을 몰아내야 자본주의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sunbyungho 본지 대표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